제2부 한국유학

제4장

한국 성리학 연구

배제성 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1] 검토 범위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132편), 박사학위논문(10편)으로 총 142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퇴계 이황(李滉, 退溪 1501-1570)에 관한 논문이 26편으로 가장 많았고, 율곡 이이(李珥, 栗谷 1536-1584)에 대한 논문이 19편으로 뒤를 이었다. 퇴계와 율곡에 대한 논문은 전체 편수가 45개로 비율 면에서 전체 검색 논문의 32%를 차지하여 여전히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대략 절반(약 45%)을 차지했던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또 퇴계와 율곡이 나란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퇴계가 율곡의 2배에 이르렀던 2014년도 이래의 경향에 비해서는 퇴계와 율곡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1 이 보고서는 배제성, 오진솔, 유한성, 이원준이 함께 집필하였다.

이외에는 남당 한원진(6편), 갈암 이현일(5편), 포저 조익(4편) 순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성리학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한해 목록에 넣은 다산 정약용(7편)의 논문도 작년과 비슷한 양이 포함되었다. 이 중 남당 한원진에 대한 연구는 전년도에도 5편이 발표되었으며,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퇴계 · 율곡 · 다산을 제외하면 유일하다. 이 중에서도 정약용의 경우는 성리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더라도 그 유관성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 · 율을 제외한 성리학자 가운데서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우이다. 갈암 이현일의 경우 전년도 목록에는 1편만 수록되었지만 올해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포저 조익에 관한 연구는 작년도에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4편이 발표되었다.

한편 기대승에 관한 논문은 전년도에 8편으로 퇴 · 율 다음으로 많은 편수가 발표되었지만 올해에는 조사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주 이진상에 대한 논문도 전년도(6편)에 비해 많이 감소한 편이다(2편). 또한 간재 전우에 관한 연구는 2016년(6편)과 2017(4편)에는 비교적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올해에는 1편만이 확인되었다.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2	신태수	퇴계 독서시의 지향가치와 그 인성론적 의의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3	이정화	退溪 李滉의 述懷詩 硏究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권봉숙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5	정재권	退溪와 水雲의 心學 考察	퇴계학논총 32	퇴계학부산연구원
6	황금중	퇴계 성리학에서 敬의 의미와 실천법: 敬의 四條說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7	김기호	퇴계의 『숙흥야매잠도』 정좌와 독서, 그리고 경	한국사상과문화 92	한국사상문화학회
8	지준호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 – 『성학십도』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9	신창호	퇴계 언행록의 사제관계에서 탐색한 학습법과그 현대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56	한국철학사연구회
10	강보승	퇴계의 虛心遜志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11	김부찬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나타난 심신수양론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임헌규	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공맹과 퇴계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13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14	김기현	선심의 선과 중절의 선 – 사단칠정 해석 분기의 제1원인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5	홍성민	도덕 감정에 관한 퇴계와 율곡의 사유 – 상호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6	김지은	사단에 대한 주리적 해석 – 퇴계와 농암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7	강보승	인성함양의 관점에서 고찰한 퇴계의 리발설과 율곡의 기질변화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18	이상익	退溪 性理學의 普遍性과 特殊性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9	정도원	退溪와 栗谷의 心學과 外王으로의 轉換論理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20	심형진	유학사상을 통해서 본 인성의 준거 – 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문화 91	한국사상사문화학회
21	이원진	퇴계의 理自到과 스피노자의 자기원인(causa sui)–퇴계 理의 體用論과 스피노자의 실체/속성론 비교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22	최영성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번의 만남 – 대화와 소통을 화두로–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3	김상현	이황은 왜 '리자도'를 말했는가? – 주희 격물론의 수용과 변용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24	이원준	퇴계는 '이도'를 어떻게 읽었는가 – '이도' 독법을 통해 본 '활물'로서의 '리'–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25	정주하	이황과 허목의 서예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26	권순철	다카하시 도오루의 퇴계관 – 조선유학사 강의록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퇴계 이황에 관련된 연구는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퇴계 연구 현황의 특징은 그의 사칠론, 이기론 그리고 심성론을 다루는 이론적인 논문의 비중도 매우 높지만, 수양론에 관한 논문도 많은 편이고, 또 문학, 미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두루 포괄된다는 점이다. 올해에는 리도설에 관한 논문이 3편이나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유경 이상열	율곡의 향약에 보이는 협동조합의 정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2	김대흥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 硏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철학과
3	이경구	'학'에서 '주의'로 이이와 송시열의 경서 이해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김경호	율곡 이이의 여정과 소통의 감성철학적 구상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고명신	율곡시의 주제영역과 미학적 특징	박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	황정희	『격몽요결』을 통한 '주체적인 나'의 자각과 도야 – 「수신장」을 통한 청소년 철학하기 방법론 제시 –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7	이병기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성학집요』 수기 상편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9	한국윤리교육학회
8	이천승	人乘馬 비유를 통해 본 율곡 이이의 도덕실천 지향의지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9	최보경	율곡 사상에 나타난 주체의 도덕 판단 의지 – 思 · 慮 · 念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10	김미소	栗谷의 “理” 哲學 硏究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11	손흥철	율곡의 태극론 연구	율곡학연구 36	(사)율국연구원
12	서원혁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硏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철학과
13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4	홍성민	도덕 감정에 관한 퇴계와 율곡의 사유 – 상호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5	강보승	인성함양의 관점에서 고찰한 퇴계의 리발설과 율곡의 기질변화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16	정도원	退溪와 栗谷의 心學과 外王으로의 轉換 論理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7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율곡학설 비판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18	최영성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번의 만남 – 대화와 소통을 화두로–	퇴계학논집23	영남퇴계학연구원
19	손흥철	龜峯과 栗谷의 學問과交遊	동양철학연구93	동양철학연구회

율곡에 관련된 논문의 수는 19편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퇴계와 더불어 여타의 인물보다 현격하게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올해의 율곡 관련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측면은 다른 학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 논문이 많았다는 점이다. 퇴 · 율의 관계에 중점을 둔 논문이 5편 있었고, 율곡과 구봉 송익필을 함께 다룬 논문이 2편, 송시열과 함께 논의한 논문이 1편 있었다. 또 서원혁(충남대학교 철학과,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硏究」), 김대홍(강원대학교 철학과,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

的 法制改革論 硏究」), 고명신(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 硏究」) 등은 율곡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3)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민황기 이시우	홍주의병의 유교 학맥과 실천정신– 한원진의 사상과 이설 · 김복한 실천정신의 내적연관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조지선	한원진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활용가치	양명학51	한국양명학회
3	정연수	「중용」편과 「맹자」편의 순차로 구성된 『주자언론동이고 』 체계에 관한 일고찰 – 한원진의 공부론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배제성	心 · 性 · 氣質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본 南塘 · 巍巖 未發論	양명학49	한국양명학회
5	이창규	人心道心說에서 朱熹와 韓元震의 문제의식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6	정연수	남당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재고–리의 주재성과 미발존양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37	(사)율국연구원

한원진에 대한 연구는 2016년에 이래로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올해의 연구 성과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호락논변에 중점을 둔 논문이 1편(배제성)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 외의 논문들은 한원진의 인심도심설을 다루거나(이창규), 그의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를 탐구하거나(조지선), 「주자언론동이고」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원진의 공부론의 특징을 규명하고(정연수), 그의 철학적 특징에 기반하여 사상사적 특징을 조명하고(정연수), 한원진 사상과 홍주의병의 연관성을 탐구하는(민황기, 이시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4) 갈암 이현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낙진	〈홍범연의〉의 개혁사상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	정재훈	〈홍범연의〉의 제왕학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3	최영성	『홍범연의』를 통해 본 존재 · 갈암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4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비교 고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5	이영호	『서경』『홍범』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이휘일 · 이현일의 『홍범연의』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올해 갈암 이현일에 대한 연구는 5편으로 작년(0편)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다. 그런데 이 중 4편이 『홍범연의』를 다루고 있다. 즉, 『홍범연의』 관련 연구가 집중된 것이 올해 이현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원인이다. 그 외에 안유경은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을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5) 포저 조익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병기	經學史적 관점에서 본 浦渚 趙翼의 中庸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조정은	포저 조익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 –논어천설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남지만	포저 조익의 성의공부로서의 무자기(毋自欺)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7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	임재규	16–17세기 朝鮮 經學에 있어서 朱子 中和說의 수용과 비판 – 趙翼과 朴世堂의 中和說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포저 조익에 관한 논문은 작년에 검토한 학술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지만 올해에는 4편이 포함되었다. 조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학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황병기, 조정은, 임재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남지만은 '무자기(毋自欺)'를 중심으로 조익의 사상을 연구하였다.

6) 다산 정약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봉규	조선후기 경세서의 예제와 그 성격－목민심서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헌규	〈논어〉의 공자 '天'개념에 대한 일고찰－古 · 新注와 대비한 茶山 丁若鏞의 주석의 특징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3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4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 — 四德 · 四端論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5	심형진	유학 사상을 통해서 본 인성의 준거–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문화 91	한국사상사문화학회

다산 정약용은 주요하게는 실학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성리학과 비교적 관련이 높아 보이는 논문들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심형진은 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성론을 탐구하였고, 김윤경은 사단과 사덕을 중심으로 하곡학과 다산학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임헌규는 '천(天)' 개념에 대한 정약용의 주석을 분석하였고, 전성건은 정약용의 혈기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7)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오세현	주희의스승 이통을 바라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선–『연평답문』의 간행 및 독서와 이통의 문묘종사를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8	한국사상사학회
2	장재천	우암 송시열의 여성교육관	한국사상과문화 95	한국사상문화학회
3	이경구	'학'에서 '주의'로 이이와 송시열의 경서 이해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이영자	구봉송익필의경세사상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율곡학설 비판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6	손흥철	龜峯과栗谷의學問과交遊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7	서근식	우담 정시한의 [사칠변증]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8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비교고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9	노병렬, 천병돈	李恒老와 魏源의 時中之道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10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벽사록변』·『아언』『양화』를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2	이상익	坪浦論爭의 근본 문제	영남학 6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3	서근식	성호 이익의 『사칠신편』에 나타난 사단칠정론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4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15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경사상 고찰	한국사상사학 59	한국사상사학회
16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미발론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두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경우를 위주로 수록하였다. 우암 송시열과 구봉 송

익필에 대한 논문이 각각 3편 씩 발표되었다. 그리고 우담 정시한, 화서 이항로, 한주 이진상, 성호 이익, 대산 이상정에 대한 논문이 각각 2편씩 발표되었다.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56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21편(약 15%)이다. 그리고 경세론 관련 논문은 20편으로 약 14%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59편(약 42%)으로 단일 범주로서는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성리학 연구 범위와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미소	栗谷의 "理"哲學 硏究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	손흥철	율곡의 태극론 연구	율곡학연구 36	(사)율국연구원
3	정연수	남당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 재고–리의 주재성과 미발존양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4	이상익	'인기위대본'은 오류인가? –『중용』의 '천하지대본'에 대한 재론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이원진	퇴계의 理自到과 스피노자의 자기원인(causa sui)–퇴계 理의 體用論과 스피노자의 실체/속성론 비교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6	김상현	이황은 왜 '리자도'를 말했는가? – 주희 격물론의 수용과 변용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7	이원준	퇴계는 '이도'를 어떻게 읽었는가 – '이도' 독법을 통해 본 '활물로서의 리'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8	서원혁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研究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철학과

이기론에 대한 논문은 7편으로 전년도(16)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기론과 심성론의 범주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기심성론 전체의 편수와 비율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이기심성론을 통합할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편수와 비슷한 비율(41%)을 보여주므로, 이기론의 편수가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는 퇴계의 리도설(理到說)에 대한 연구가 3편 있었다. 김상현은 「이황은 왜 '리자도'(理自到)를 말했는가? - 주희 격물론의 수용과 변용 -」라는 논문에서 인식론과 수양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퇴계가 만년에 '리자도설'을 수용한 이유를 규명하고 있다. 이원준(「퇴계는 '이도(理到)'를 어떻게 읽었는가 - '이도' 독법(讀法)을 통해 본 '활물(活物)로서의 리(理)'-」)은 리도(理到)에 대한 독법을 중심으로 퇴계 리도설에 담긴 철학적 함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퇴계의 리도설은 단지 '물격'을 해석하는 문법적 정합성을 넘어서서 리에 대한 그의 이해가 격물 · 물격의 맥락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원진(「퇴계의 理自到과 스피노자의 자기원인(causa sui)-퇴계 理의 體用論과 스피노자의 실체/속성론 비교」)은 다른 관점에

서 '리자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퇴계의 '리의 이동성'이 가지는 의미가 스피노자의 자기원인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제안한다. 퇴계의 '리자도'와 스피노자의 '자기원인'이 공통적으로 우주의 원리의 역동적인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와 스피노자를 비교하고 있다.

김미소의 「栗谷의 "理" 哲學 硏究」는 기존연구에서 율곡의 기(氣)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한 반면, 리에 대한 그의 관점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율곡의 리에 대한 관점을 "형이하의 실재성이 없다"는 측면과 "형이상의 실재"라는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인간의 도덕 수양을 강조하는 것이 율곡의 취지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한편, 손흥철(「율곡(栗谷)의 태극론(太極論) 연구(硏究)」)은 태극에 대한 율곡의 이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율곡 이전에 있었던 조한보와 이언적의 태극 논변으로부터 율곡의 「역수책(易數策)」, 율곡과 우계의 태극문답, 『성학집요』, 율곡과 사암 박순의 토론 등을 고루 검토하면서 율곡의 태극론이 가진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익은 「'인기위대본(認氣爲大本)'은 오류인가? - 『중용(中庸)』의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에 대한 재론」에서 미발의 대본을 심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성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발의 대본이 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심을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호락논쟁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상익은 대본에 대한 주자의 설명에서 대본을 심으로 보는 관점, 성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심성을 아우르는 관점이 모두 있었다고 제시하며, 기(氣)를 아울러서 대본을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결론짓는다. 마지막으로 정연수

는 남당 한원진의 철학이 가지는 특징을 '리의 주재성 확립'과 '미발존양에 의한 심기의 기질변화론 확립'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주장이 후대에 끼친 사상사적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서원혁은 충남대학교 철학과에서 「栗谷李珥의 理通氣局 哲學硏究」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2) 심성론

2018년 동양철학 관련 학회에서 개제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총 35편이었다. 이 논문들의 내용과 수량을 고려해서 주제별로 분류해본 결과 사단칠정론, 호락논쟁, 심설논쟁 그리고 기타논문으로 나누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제별로 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사단칠정론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유경	갈암 이현일과 우담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비교고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	김윤경	霞谷學과 茶山學의 사상적 연계 고찰을 위한 試論－四德 · 四端論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3	홍성민	四七論의 해체와 善의 일원화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4	오진솔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5	이천승	人乘馬 비유를 통해 본 율곡 이이의 도덕실천 지향의지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6	김기현	선심의 선과 중절의 선－사단칠정 해석 분기의 제1원인－	율곡학연구 37	(사)율곡연구원
7	홍성민	도덕 감정에 관한 퇴계와 율곡의 사유－상호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7	(사)율곡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김지은	사단에 대한 주리적 해석 – 퇴계와 농암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9	서근식	성호 이익의 『사칠신편』에 나타난 사단칠정론 연구	율곡학연구 37	(사)율국연구원
10	서근식	우담 정시한의 [사칠변증]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심성론에서 기타를 제외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주제는 사단칠정론이었다. 총 12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7년과 유사하게 이 중 과반수가 퇴계 이후 남인, 구체적으로 우담과 갈암, 성호의 사칠론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이에 기본적으로 퇴계의 사칠론에 대한 학계의 이해가 성숙되면서, 퇴계 이후 남인에게서 사칠론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을 알 수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논문들로는 우선 오진솔의 「성호 이익의 퇴계 사칠론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다. 오진솔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퇴계와 성호의 사칠론을 다르게만 규정하고 더 분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성호의 의문이 퇴계의 사칠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서술했다. 이 논문은 퇴계의 사칠론과 성호의 사칠론이 논의 맥락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바꿔줄만한 성과라고 본다. 또한 서근식은 「우담 정시한의 [사칠변증(四七辨證)]에 관한 연구 」에서 기존의 우담 사칠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각 선행연구들이 가진 특징과 장단점을 고루 서술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우담 사칠론 연구가 가지는 위상을 재확인 할 수 있고, 후속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수립에 있어 좋은 안내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심설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영성	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 사칠논쟁에서 심설논쟁까지-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2	유지웅	한말 기호학계와 심설논쟁-기호학계의 상황과 심설논쟁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현우	이항로의 심설과 서학-『벽사록변』·『아언』『양화』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4	안유경	19세기 심설논쟁의 발단양상에 관한 연구 -한주 이진상과 만구 이종기의 서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5	김낙진	주문팔현과 퇴계학자들의 토론에서 드러나는 한주학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6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 연구	영남학 6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7	이상익	坪浦論爭의 근본 문제	영남학 6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8	안유경	양재 권순명의 心論 고찰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2017년 하반기 심설연구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해당 논쟁 관련 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는 2018년 연구성과 분석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관련 연구는 총 8편으로서 대부분의 저자들이 해당 연구팀에 연구원으로 소속된 상태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최영성의 「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19세기 심설논쟁(心說論爭)-사칠논쟁(四七論爭)에서 심설논쟁(心說論爭)까지-」를 들 수 있다. 논문에서 저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심설논쟁을 보고 있다. 우선 사칠논쟁과 호락논쟁의 철학적 연장선으로서 심설논쟁을 보고 이 논쟁이 가지는 위상과 특징을 탐색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대부들의 의병활동과 심설논쟁을 연관해봄으로써 성리설이 가지는 실천적 양상을 분석했다. 논문은 기본적으로 당시 구한말 사대부들의 시대의식을 바탕으로 성리

설과 의병활동이라는 상반된 두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3) 호락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心 · 性 · 氣質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본 南塘 · 巍巖 未發論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2	이종우	삼연 김창흡의 미발설과 호락논쟁에서 그 위상	열상고전연구 63	열상고전연구회
3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미발론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4	박학래	대산 김매순의 성리설 연구 –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에 유의하여 –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8년에 개제된 호락논쟁 관련 논문은 총 4편이다. 이 중 기존에 가장 많이 다루었던 남당과 외암 관련 논문은 1편이고, 상대적으로 주변인물인 삼연과 대산(臺山)의 논문이 2편이다. 그리고 남인으로 분류되는 대산(大山)에 관한 연구가 1편이다. 이를 보면 사칠론과 마찬가지로 해당 논쟁에 관한 이해가 성숙되었고 그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 돌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주목해볼만한 논문은 배제성의 「心 · 性 · 氣質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본 南塘 · 巍巖 未發論」이다. 저자는 주자의 심성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남당과 외암의 미발론이 각각 다른 맥락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논문에서 남당은 성선의 근거와 심에 관한 수양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단지와 겸지로 성과 심기의 편차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암은 남당의 논리를 수양의 주체인 심을 격하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선의 실현자인 심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단순

비교 혹은 개념규정상의 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고, 철학적 관점에서 두 논자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분석했다. 때문에 이 글은 해당 주제의 성과들이 집약된 결정체로서, 그리고 조선 성리학 특히 호락논쟁을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이 된다고 생각한다.

(4) 기타 연구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기묘사화와 中和論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2	심의용	成以心의『人易』과 스피노자의 感情論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임재규	16–17세기 朝鮮 經學에 있어서 朱子 中和說의 수용과 비판 – 趙翼과 朴世堂의 中和說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4	임헌규	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 공맹과 퇴계를 중심으로 –	대동철학 84	대동철학회
5	최보경	율곡 사상에 나타난 주체의 도덕 판단 의지 – 思 · 慮 · 念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50	한국동양철학회
6	고재석	조선 전기 심학의 전개에 관한 연구 – 象山 학문의 수용태도와 비판논점 분석을 중심으로 –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7	전병욱	穌齋 盧守愼의 人心道心 사상	퇴계학논총 32	퇴계학부산연구원
8	이상익	退溪 性理學의 普遍性과 特殊性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9	정도원	退溪와 栗谷의 心學과 外王으로의 轉換論理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10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율곡학설 비판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문화 93	한국사상문화학회
11	심형진	유학사상을 통해서 본 인성의 준거 – 퇴계와 다산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문화 91	한국사상사문화학회
12	이창규	人心道心說에서 朱熹와 韓元震의 문제의식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72	한국유교학회
13	강보숭	인성함양의 관점에서 고찰한 퇴계의 리발설과 율곡의 기질변화론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기타 주제들의 연구는 총 13편이다. 주제를 나눠보면 퇴계와 율곡에 관한 논문이 총 6편이고, 중화설에 관련된 논문은 2편이며, 인심도심에 관련된 논문도 2편이다. 2017년도에 비해 기타 논문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에서 이미 심성론 관련 논문들은 특정 논쟁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계율곡 관련 논문 6편중에서 3편(임헌규, 심형진, 강보승)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철학적 개념규정을 벗어나 현대 인성교육에서 성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임헌규의 「인공지능시대 유교 심성론의 의미- 공맹과 퇴계를 중심으로-」는 심성론 연구의 다양성과 인성교육 강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논문이다. 저자는 AI시대에서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차별점을 성리학에서 찾고자 한다. 기존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자극과 반응이라는 기계적인 존재로 다룬다. 반면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에서 도덕의 근원을 찾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위상을 확립시켜주는데 좋은 철학적 이론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응용을 모색하는 연구 성격상 세부적인 논리의 정밀함에 있어서는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후속 연구자들이 심성론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제안한 논문으로 의미가 있다.

심성론 관련 연구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면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여전히 사칠논쟁, 호락논쟁과 같은 주제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심성정의 개념규정, 개념간의 관계 규정이 조선 성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퇴계나 율곡을 넘어서 다른 학자들의 심성론을 분석한 논문이 늘어났다. 때문에 특정 주제에 집중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료가 더욱 풍부해

지고, 이를 통해 심성론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었다. 다만 외연이 확장되었음에도 그것이 가진 의의가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또 연구내용들도 기존 선행연구와 크게 차별되지 못했고 그 분석의 질이 크게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타 연구의 양이 늘어났고 그 연구폭도 더욱 넓어졌다. 특히나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교육학과의 연계가능성이 넓어졌다.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은 고무될만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다른 학문에서 시작되었음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만약 본 전공의 연구자들이 해당 주제로 논문을 썼다면 훨씬 더 정밀한 성과를 냈을 것이라 본다. 물론 자기 연구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연계가능성이 높고, 실천적인 효과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들 또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 이 외연의 확장에서 심성론이 현대적으로 읽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3) 수양론 및 교육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재목	장계향의 성인관과 교육론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아름	월천 조목의 교육활동 탐색	교육철학 69	한국교육철학회
3	정대진	『心經發揮』를 통해 본 寒岡 鄭逑의 실천정신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	조지선	한원진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활용가치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5	권봉숙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황금중	퇴계 성리학에서 敬의 의미와 실천법: 敬의 四條說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4	퇴계학연구원
7	장재천	우암 송시열의 여성교육관	한국사상과문화 95	한국사상문화학회
8	김기호	퇴계의 『숙흥야매잠도』 정좌와 독서, 그리고 경	한국사상과문화 92	한국사상문화학회
9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경(敬)사상 고찰	한국사상사학 59	한국사상사학회
10	지준호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 – 『성학십도』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신창호	퇴계 {언행록}의 사제관계에서 탐색한 학습법과그 현대적 이해	한국철학논집 56	한국철학사연구회
12	안유경	사미헌 장복추의 『夙興夜寐箴集說』에 대한 고찰	영남학 6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3	강보승	퇴계의 虛心遜志	유교사상문화연구 74	한국유교학회
14	황정희	『격몽요결』을 통한 '주체적인 나'의 자각과 도야 – 「수신장」을 통한 청소년 철학하기 방법론 제시 –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정연수	「중용」편과 「맹자」편의 순차로 구성된 『주자언론동이고』 체계에 관한 일고찰 – 한원진의 공부론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김부찬	퇴계이황의 활인심방에 나타난 심신수양론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7	이병기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성학집요』 수기 상편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9	한국윤리교육학회

퇴계 본인을 주제로 한 논문은 총 7편이 발표되었으며, 이 중 수양론을 다룬 논문이 4편(권봉숙, 김기호, 황금중, 김부찬), 공부론을 다룬 논문이 3편(강보승, 신창호, 지준호)이다.

수양론 논문은 대체로 퇴계 수양론의 핵심 개념어인 경(敬)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순수하게 경(敬) 사상의 내용을 분석한 논문은

황금중의 「퇴계 성리학에서 敬의 의미와 실천법: 敬의 四條說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 편으로, 경에 대한 주요 명제인 '主一無適', '整齊嚴肅', '常惺惺法', '心收斂不容一物'이 '전일(專一)'이라는 동일한 체험의 다양한 풀이로 보고, 이를 인욕적 소음을 비워낸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天理가 드러나고 窮理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김기호의 「퇴계의 『숙흥야매잠도』 정좌와 독서, 그리고 경」에서 경(敬)은 「숙흥야매잠도」에 제시된 정좌수행, 몰입독서를 지탱하고 연결하는 중심으로 제시되어 독서방법론의 측면에서 경(敬) 사상의 기능을 서술하였다.

수양론과 관련된 나머지 두 논문은 각각 간호학, 스포츠과학 계열에서 퇴계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시킬 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권봉숙의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에서는 퇴계의 저술에서 보건의학 개념인 '건강증진'에 대한 근원과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계 사상 속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담론이 현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부찬의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나타난 심신수양론」에서는 퇴계의 수양론을 마음수양과 몸수양의 두 갈래로 분석한 뒤 이를 경(敬)과 연관시킨 것으로, 퇴계사상이 상업화와 물신화에 빠져 있는 현대 체육활동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공부론 논문 가운데 강보승의 「퇴계의 虛心遜志: 비우는 공부와 실천 방법」은 '마음을 비움[虛心]' 또는 '마음을 비우고 뜻을 겸손히 함[虛心遜志]'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퇴계의 '비우는 공부'를 고찰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입지(立志)와 물망물조장(勿忘勿助長) '비우는 공부'의

시작과 관건으로 보고, 유유자적과 『소학』의 일상적 실천을 골자로 하는 '자연스럽게 비우기'와 정좌를 골자로 하는 '적극적으로 비우기'를 '비우는 공부'의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지준호의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성학십도』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는 성학(聖學)을 목표로 경(敬)을 통하여 인륜(人倫)에 기초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실천적 노력을 기울인 퇴계 이황의 도덕교육론을 탐구한 것으로,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고 전통교육의 측면에서 도덕문화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신창호의 「퇴계 『언행록』의 사제관계에서 탐색한 학습법과 그 현대적 이해」에서는 퇴계의 사제관계를 통해 퇴계의 교육방법론을 살펴본 것으로, 퇴계의 교육방법론이 인지학습의 측면에서는 잠재학습과 통찰학습, 모방학습과 상통하고, 성인학습의 측면에서는 경험학습과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의사소통학습의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의 수양론과 공부론 연구성과들은 퇴계 사상 자체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퇴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목표로 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퇴계 사상 자체를 분석한 2편의 논문 가운데 황금중의 논문은 경(敬) 사상과 관련된 제 명제들을 전일(專一)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존에 활발히 연구되던 경(敬) 개념을 재구성하였고, 강보승의 논문은 퇴계의 허심(虛心) 공부법을 분석함으로써 퇴계 공부론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퇴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는 퇴계 교육방법론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김기호, 지준호, 신창호), 철학 외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

(권봉숙, 김부찬)은 각 연구자들의 전공분야에 퇴계 수양론의 내용을 접합함으로써 퇴계사상의 현대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퇴계의 후학 및 퇴계와 관련된 인물을 주제로 한 논문은 총 5편이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인물별로는 퇴계 직전제자를 주제로 한 연구가 2편으로 각각 월천 조목(月川 趙穆, 1524~1606) 과 한강 정구(寒岡 鄭逑, 1543~1620)를 주제로 하였다. 재전 이하 퇴계학파를 주제로 한 연구는 2편으로,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1710~1781)과 사미헌 장복추(四未軒 張福樞, 1815~1900)를 주제로 동일한 연구자의 논문이다. 또한 퇴계학파 관련 인물로 경당 장흥효(敬堂 張興孝, 1564~1633)의 딸인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을 주제로 한 연구가 1편 있다.

이아름의 「월천 조목의 교육활동 탐색」은 조목의 서원건립과 향교중건, 강학활동 등을 토대로 그의 교육자적 면모를 조망하였으며, 그가 퇴계학인이자 교육자로써 스스로 본보기가 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진행했다고 보았다.

정대진의 「『心經發揮』를 통해 본 寒岡 鄭逑의 실천정신」은 정구가 유교적 입장에서의 실천을 확립하고자하는 의도로 『심경발휘』를 편찬하였으며, 「경이직내장」에서 '경(敬)'의 중요성을 여러 범주와 상관적 개념을 분석하고 경의 구체적 과정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함으로써, 그가 마음의 내면과 외면을 밝힘에 있어서 '敬'중심의 실천정신을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안유경의 논문 가운데 「대산 이상정의 경(敬)사상 고찰」은 이상정의 경 공부를 내외(內外)와 동정(動靜)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안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밖으로의 정제엄숙(整齊嚴肅)을 강조하였고, 고요함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일상의 동적인 상황에서 경을 유지할 것을 강

조하였음을 밝혔다. 동시에 이상정이 동정을 지나치게 구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부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動中之靜, 靜中之動'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불교의 좌선(坐禪)과 구분되는 유가 경 공부의 특징이자 이상정의 경 사상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논문인 「사미헌 장복추의 『숙흥야매잠집설』에 대한 고찰」은 장복추가 퇴계의 「숙흥야매잠도」의 구성에 근거하여 「숙흥야매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숙흥야매잠집설」을 저술하였고, 여기서 그가 이상정과 같이 내외와 동정의 틀로 경을 해석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장복추의 작업이 정주학 수양론의 중심이 되는 경의 실천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화시킴으로써 퇴계학파의 수양론적 전통을 계승, 강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최재목의 「장계향의 성인관(聖人觀)과 교육론」에서는 장계향이 영남 퇴계학파의 '경'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흥효의 가르침을 더욱 충실하게 계승하여 '경신'(敬身)을 추구하였다고 본다. 이를 기반으로 장계향의 교육론에서 (1) 경신(敬身)='자기존중' 교육, (2) 섬김-모심으로 타자 대하기, (3) 욕망과 감정의 움직임을 일상 속에서 체크하기, (4) 원만한 긍정적 대화법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는 '상담, 리딩의 기법'으로서 현대에도 계승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퇴계 본인에 대한 연구성과가 퇴계사상의 현대적 적용과 외연 확장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퇴계학파의 수양론 및 공부론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모두 해당 사상가 본인의 사상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아름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경 사상을 중심에 놓고 각 학자의 저술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퇴계후학의 수양론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개별 학자에 대한 독자적 연구보다는 퇴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율곡과 율곡학파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5편으로, 구체적으로는 율곡 본인을 주제로 한 연구가 2편(황정희, 이병기), 율곡학파의 학자를 주제로 한 연구가 3편이다. 율곡학파의 경우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여성교육관을 주제로 한 논문이 1편(장재천),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의 공부론을 주제로 한 논문이 2편(조지선, 정연수)이다.

율곡 본인을 주제로 한 연구 중 황정희의 「『격몽요결』을 통한 '주체적인 나'의 자각과 도야(陶冶)」는 공부행위의 목적과 의의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철학하기'의 과정을 직접 실천해 보는 방법론으로 『격몽요결』을 제시하였다. 해당 논문은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지신(持身)」, 「독서(讀書)」장을 수신(修身)으로 통합한 뒤 이를 꿈의 자각(입지)과 도야(혁구습, 지신, 독서)로 규정하고, 이것이 능동적, 주체적 '철학하기'가 된다고 보았다.

이병기의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도덕과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 『성학집요』 수기 상편을 중심으로」의 경우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 시 한국 전통 윤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학집요』 〈수기 상〉편에서 고려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성학집요』 〈수기 상〉편에서 志於道, 居敬, 窮理三端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율곡학파를 주제로 한 연구 중 장재천의 「우암 송시열의 여성교육관」은 송시열의 철학이 주자의 교의를 철저히 신봉하였지만 사변적 이

론보다는 실천적인 수양과 사회적인 변용에 더 역점을 두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문제도 전통적인 미덕을 강조한 동시에 주부권과 관련된 경제적 구실도 중시하였으며, 현대인들에게도 일부는 꼭 필요한 성품수양이나 언어생활, 행동예절, 교양생활 등 지극히 윤리 · 도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조지선의 「한원진 성삼층설의 인성교육적 함의와 활용가치」에서는 한원진이 성삼층설에서 기질 변화를 통해 인간다움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보고, 한원진의 사상이 인간본성의 철학적 정의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공부론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의 본성론과 공부론이 인성교육과 관련해 충분한 철학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연수의 「「중용(中庸)」편과 「맹자(孟子)」편의 순차로 구성된 『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考)』 체계에 관한 일고찰」에서는 한원진이 미발심을 경으로 존양(存養)하는 공부를 주장한 이후에 기질변화의 역행공부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이에 기반하여 『주자언론동이고』에서 일반적인 사서 학습법인 『대학』–『논어』–『맹자』–『중용』 순이 아닌 『중용』–『맹자』 순으로 구성한 까닭이 존양이후 기질변화를 강조한 그의 공부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율곡 및 율곡학파의 수양론과 공부론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들은 대부분의 논문이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논문이다. 율곡을 주제로 한 연구는 『격몽요결』, 『성학집요』 등 율곡의 저술에서 그의 수신(修身) 관념의 특징을 포착하고, 이러한 율곡 수신관의 현대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문집 외의 저술에서 수양론의 특징을 포착해내는 작업은 율곡학파인 한원진 수양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정연수)에

서도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 논문들은 공통으로 기질변화 강조와 강한 실천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기질변화를 기저로 한 실천의 강조를 율곡 및 율곡학파 수양론과 공부론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세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낙진	『홍범연의』의 개혁사상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	김대홍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硏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철학과
3	김태희	조선의 '유가적 법치'이념:『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편찬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4	노병렬 천병돈	李恒老와 魏源의 時中之道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5	안유경 이상열	율곡의 향약에 보이는 협동조합의 정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6	이영자	구봉 송익필의 경세사상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7	이영호	『서경』「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이휘일 · 이현일의 『홍범연의』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8	이욱근	선조대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 연구	동양고전연구 72	동양고전학회
9	이종수	鄭道傳『朝鮮經國典』法治思想 分析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10	이해임	조선전기 중앙관료의 맹자(孟子)에대한 인식-실록과 경연자료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1	임형택	修堂 李南珪의 사상과 문학	민족문화 51	한국고전번역원
12	정재훈	『홍범연의』의 제왕학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13	최석기	錦溪 黃俊良의 經世意識과 精神志向	영남학 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4	최연식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경국제세, 그리고 전쟁관리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15	최영성	『홍범연의』를 통해 본 존재 · 갈암의 학문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7	(사)율곡연구원

성리학에서 경세론은 말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루는 이론이다. 경세론에서는 흔히 정치이론 혹은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다룬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은 총 16편(학술지논문 15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며, 총 14편의 경세론 관련 논문이 발표된 2017년도보다 출간 논문 수가 증가하였다. 시대별로 주요한 사회문제가 다르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경세론 관련 논문들은 대개 인물별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동안 한국 성리학 연구자들의 경세론 주제 연구를 살펴보면, 이이(李珥, 1536~1584) 관련 연구는 매년 전체 연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였다. 2018년에도 이이의 경세론 관련 논문은 총 3편(김대홍, 「栗谷 李珥의 實踐倫理的 法制改革論硏究」; 안유경 · 이상열, 「율곡의 향약에 보이는 협동조합의 정신」; 추제협, 「이황과 이이의 정치개혁론과 성학 –「무진육조소」와 「만언봉사」를 중심으로–」)이 발표되어 전체논문 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경세론 연구의 특이사항이라면 이휘일(李徽逸, 1619~1672)과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저술한 『洪範衍義』와 관련된 논문이 총 4편이라는 점이다. 2018년도 전에는 『홍범연의』를 다루는 연구가 총 4편에 불과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2] 『홍범연의』 연구에 있어서도

2 2018년도 이전 발표된 『홍범연의』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송찬식(宋贊植 1982), 「洪範街義 解題」; 김성윤(金成潤 2006), 「洪範衍義의 토지개혁론과 상업론」, 「『홍범연의』의 정치론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학연구』35에서 『홍범연의』 특집으로 4편의 논문을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학연구』 특집 논문 4편 중 김낙진(「『홍범연의』의 개혁사상」), 정재훈(「『홍범연의』의 제왕학」), 최영성(「『홍범연의(洪範衍義)』를 통해 본 존재存齋 · 갈암葛庵의 학문」) 등 3편의 논문이 경세론을 다루었다.[3] 특집논문 외에도 이영호(「『서경』 「홍범」 해석의 두 시각, 점복과 경세 – 이휘일 · 이현일의 『홍범연의』 분석을 중심으로 –」)의 논문이 『홍범연의』와 관련된 경세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논문은 『홍범연의』의 경세론을 다루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김낙진의 논문은 『홍범연의』에서 토지제도 등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재훈의 논문은 『홍범연의』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임금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홍범연의』 이전 제왕학과 대조하여 파악하였다. 최영성의 논문은 『홍범연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磻溪隧錄』, 『洪範學記』과 같은 다른 홍범학 혹은 경세학 저술들과 비교하여 조선 경세학 내 『홍범연의』의 위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호의 논문은 『홍범연의』의 내용을 占卜적 경세론이라 분석하며 『홍범연의』를 주자학적 경세학이 아닌 『서경』 시대 경세학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8년 경세론 연구는 또한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조선의 법치 기반에 보다 주목하였다. 조선의 법치 기반과 관련된 논문은 총 2편으로

과 군제개혁론」; 김홍수(金洪水 2014), 「『洪範衍義』의 편찬과 간행」

3 『국학연구』35의 『홍범연의』 특집논문 중 한형주의 「『홍범연의』에 보이는 국가제사」는 경세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본고에서는 제하였다.

김태희(「조선의 '유가적 법치'이념: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편찬을 중심으로」)와 이종수(「鄭道傳 『朝鮮經國典』 法治思想 分析」)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김태희의 논문은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의 공통 속성으로 禮와 祖宗成憲 강조를 들며 이를 '유가적 법치'의 이념으로 파악하였다. 이종수의 논문은 『조선경국전』에 등장하는 정도전 민본사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도전 민본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규정하였다.

이전 경세론 연구경향에서는 연구의 대상 인물이 다양하였다. 2018년 경세론 연구도 이와 같은 연구 추세가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인물들을 제하고도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송익필(宋翼弼, 1534~1599), 이건방(李建芳, 1861~1939), 이남규(李南珪, 1855~1907), 이원익(李元翼, 1547~1634), 이항로(李恒老, 1792~1868), 황준량(黃俊良, 1517~1563)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다만 시기적으로 16세기와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민황기 이시우	홍주의병의 유교 학맥과 실천정신 – 한원진의 사상과 이설 · 김복한 실천정신의 내적연관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추제협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 – 곽재겸, 서사원, 손처눌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3	최영성	牧隱 李穡의 歷史意識과 民族思想	국학연구 37	한국국학진흥원
4	이현선	정도전의 불교 비판에서 『맹자』의 영향과 성리학에 대한 이해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5	박학래	蘆沙學 硏究의 現況과 課題 – 한국 철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임헌규	〈논어〉의 공자 '天'개념에 대한 일고찰 – 古 · 新注와 대비한 茶山 丁若鏞의 주석의 특징	동양고전연구 73	동양고전학회
7	이창욱	朝鮮 性理學의 鬼神論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5	동양철학연구회
8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9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맹자학과 혈기론	민족문화 52	한국고전번역원
10	하나	16세기 조–명 학자 사이의 학술논쟁 연구 – 주자학–양명학 논쟁을 중심으로 –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11	이철승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유가철학	철학연구 145	대한철학회
12	조정은	포저 조익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 – 논어천설을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3	권순철	다카하시 도오루의 퇴계관 – 조선유학사 강의록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14	김선희	道, 學, 藝, 術 – 조선후기 서학의 유입과 지적 변동에 관한 하나의 시론 –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15	김세서리아	조선 후기 여성 문집의 유가경전 인용 방식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와 이빙허각의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0	한국여성철학회
16	정성식	고려후기 정몽주의 불교이해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7	황광욱	'도죽장, 부채, 거문고'를 통해 본 서경덕의 선비적 풍모와 기철학적 특징	한국철학논집 59	한국철학사연구회
18	이행훈	조선전기 '격치' 개념의 의미화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19	김지은	서구문물 유입에 따른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 비교	영남학 6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	정성식	일두 정여창의 도학사상	온지논총 54	온지학회
21	김경호	율곡 이이의 여정과 소통의 감성철학적 구상	유학연구 4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고명신	율곡시의 주제영역과 미학적 특징	박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	정환희	조선의 성리학 개념사전, 李植의 『初學者訓增輯』 연구	퇴계학논집 22	영남퇴계학연구원
24	최영성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두 번의 만남 – 대화와 소통을 화두로 –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5	김소희	농산 신득구의 天說에 대한 논쟁 연구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6	손흥철	龜峯과 栗谷의 學問과 交遊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7	이인영	樓亭의 儒風에 나타난 性理學硏究: 朝鮮朝 江原道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철학과
28	인현정	홍대용의 정치철학과 물학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29	정주하	이황과 허목의 서예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미술학과
30	임란경	성재 유중교의 악론과 실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음악학과
31	오세현	주희의 스승 이통을 바라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선-『연평답문』의 간행 및 독서와 이통의 문묘종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58	한국사상사학회
32	신태수	퇴계 독서시의 지향가치와 그 인성론적 의의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33	이정화	退溪 李滉의 述懷詩 硏究	퇴계학논총 31	퇴계학부산연구원
34	이정화	임윤지당의 문학을 통해 본 마음의 의미	한국사상과문화 94	한국사상문화학회
35	장동우	행례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가례』연구의 특성 및 함의-『사례편람』과『가례집요』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36	도민재	晦齋〈奉先雜儀〉의 禮學史的 意義-16세기 祭禮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2	동양고전학회
37	장동우	變禮書를 통해 본 조선후기『家禮』연구의 특성 및 함의-『禮疑答問分類』와『禮疑類輯』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성리학 연구에서 앞서 살펴본 이기론 · 심성론 · 수양론(및 교육론) · 경세론 등은 가장 전형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리학 연구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기 어렵고 그 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개의 논문들을 아래에 소개하였다.

이행훈의 「조선 전기 '격치' 개념의 의미화」는 격치성정(格致誠正)

의 유기적 연결에 기반한 지행통합을 성리학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본령으로 보고, 조선성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포착되는 '격물치지' 개념의 의미화를 통해 지식과 주체가 유리된 현재의 지식 유통에 대해 성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곽신환의 「이색과 이이의 주돈이 이해와 추존」은 유학자이면서 불교를 깊이 이해하였던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과 율곡이 주돈이를 성리학의 비조로 추존하였음을 밝히고, 이색이 주돈이의 정정(靜定)공부를 강조하였다면, 율곡은 그를 천민(天民)으로 규정하고, 그의 태극론을 기반으로 본원탐구의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재권의 「退溪와 水雲의 心學 考察」은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의 심학(心學)에 유교의 현실적 세계관, 居敬의 수행방법, 유교적 천인합일의 논리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계 심학과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학문적 기반과 연계하여 퇴계학과 동학 한국적 유교의 발전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추제협의 「조선중기 한강학파의 전개에서 본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은 괴헌 곽재겸(槐軒 郭再謙, 1547~1615), 악재 서사원(樂齋 徐思遠, 1550~1615), 모당 손처눌(慕堂 孫處訥, 1553~1634) 의 사상을 통해 한강학파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대구지역 성리학의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그 특징으로 '심학心學'을 중시하되 경공부(敬工夫)로 일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이를 의병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았다. 선병삼의 「우리 곁의 유학자 익분 최영대의 삶과 학문」은 간재 전우(艮齋 全愚, 1841~1922)의 재전문인으로 근현대 시기의 성리학자 익분 최영대(益奮 崔永大, 1903-1981)의 성리설을 고찰한 논문으로, 그의 사상을 간재의 성사심제학(性師心弟學)을 계승한 위정벽이(衛正闢異), 존화양이(尊

華攘夷)의 강상론, 보도척속(保道斥俗)으로 보았다.

권오영은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에서 영남지역 여러 퇴계학파의 학문 경향 및 학맥, 주요 논쟁 등을 다루었다. 유범휴(柳範休)·유치명(柳致明) 중심의 호론(虎論), 유상조(柳相祚)·유이좌(柳台佐) 중심의 병론(屛論) 및 경기지역의 학문을 계승한 허전(許傳) 문하를 서로 비교하고 이들 사상의 동이(同異)를 파악하였다. 김세서리아(「조선 후기 여성 문집의 유가경전 인용 방식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는 여성실학자로 명명되는 이사주당(李師朱堂, 1739~1821)의 『태교신기(胎敎新記)』와 이빙허각(李憑虛閣, 1759~1824)의 『규합총서(閨閤叢書)』에 나오는 유교경전 인용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지식인이 어떻게 유교를 인식하고 구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김지은은 「서구문물 유입에 따른 정재학파와 미토학파의 사상적 대응 비교」라는 논문에서 명이 멸망한 뒤 조선과 일본이 가졌던 중화사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와 서양세력에 대해 영남의 정재학파(定齋學派)와 일본의 미토학파가 각 나라의 중화사상과 각 학파의 특성에 근거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지를 밝혔다.

이현선의 「정도전의 불교 비판에서 『맹자』의 영향과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정도전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불씨잡변』을 저술하였다는 견해에 대해, 정도전이 『맹자』가 유가적 성인의 도를 드러내기 위해 논적들을 상대했던 것처럼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불씨잡변』을 저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에 있어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불씨잡변』이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배종석(「도산道山 박재헌朴載憲의 시대인식과 학문 — 「물경천택설변」과 「자유변」을 중심으로」)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성리학자 박재헌이 그가 저술한 「物競天擇說辨」과 「自由辨」에서 서양의 진화론과 자유 개념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였는지 고찰하고 있다. 박재헌은 서양의 사상이 천리에 반하고 인의예지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크게 비판하였다. 이창욱(「朝鮮 性理學의 鬼神論 비교 연구」)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귀신론에 대한 이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김경호(「율곡 이이의 여정과 소통의 감성철학적 구상」)는 율곡의 '여정(輿情)'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소통에 대한 그의 태도와 지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① 이상익의 「'인기위대본'은 오류인가? – 『중용』의 '천하지대본'에 대한 재론」

이 논문은 중용에서 기원하는 미발의 중(中), 혹은 '천하지대본'이 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맞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의 기는 실제로는 미발의 심(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특히 조선의 호락논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이다. 남당 한원진이 대본은 리(理)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심성을 아우르는[心性一致] 것이라는 외암 이간과 대립하였다. 이 논문의 제목에 포함된 '인기위대본'은 사실 남당이 이간을 비판한 내용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미발이 심과 성의 두 측면을 포함하고, 또 성 자체를 가리키는가 하면, 공부를 통해 도달한 공효 등의 의미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자가 정작 이 측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

으며, 또 그래서 '대본'이 성에만 해당하는지, 혹은 심을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주자의 다양한 언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사이의 경중이나 의미를 판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중용』의 주자주(朱子註)를 비롯한 다양한 전거를 참조하여 주자가 대본을 성으로만 본 경우, 마음으로 대본을 설명한 경우, 심성일치를 대본으로 설명한 경우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심성일치를 대본으로 본 것이 주자학의 정론에 더 부합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시도한 논증 전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여지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변별하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다는 점만으로도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유의미한 연구이다. 또한 심성일치의 의의에 대한 저자의 설명도 참조할 만 하다. 저자는 심성일치에서 대본의 성이 '규범적 표준'으로서의 본(本)을 의미한다면, 대본의 심은 '실천적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주자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고자 했기 때문에 미발에 관련된 상반되어 보이는 여러 언설들이 나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미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정연수, 「남당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 재고 – 리의 주재성과 미발존양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원진의 사상사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이다.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남당 한원진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호락논변의 핵심 당사자로서 호학의

대표자였으며, 『주자언론동이고』나 『경의기문록』같은 조선 성리학사의 중요 문헌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상, 호락논변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그의 사상사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원진의 주요한 사상사적 기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리의 주재성 확립'과 '미발존양에 의한 심기의 기질변화론 확립'이다. 이 두 주제는 기존의 한원진 연구에서 크게 주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이것이 한원진의 중요한 철학적 기여로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전대의 사상사적 흐름과의 연관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리의 주재성 확립'은 리의 주재성을 강조했지만 무위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던 퇴계의 입장과, 반대로 무위성에 치중하여 주재성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율곡의 입장을 종합할 수 있는 대안을 한원진이 제시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우암 송시열의 입장을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발존양에 의한 심기의 기질변화론 확립'은 한원진이 미발공부를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율곡이 거경(居敬), 궁리(窮理), 역행(力行)의 세 가지를 공부의 핵심으로 제시한 데 비해, 한원진이 궁리, 역행과 더불어 거경이 아닌 존양(存養)을 제시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한원진이 기질변화공부의 핵심을 미발존양의 공부로 보았다는 것이며, 이것은 변화대상인 기질이 심(心)에 내재한다는 그의 심성론과도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일단 조선 후기의 주요 사상가들의 위치를 탐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접근을 보여준다는데 장점이 있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들이 전후와 사상사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추측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처럼 보다 구체화 된 철학적 쟁점이나 문제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실질적인 관계의 파악이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주로 전대의 사상사와 한원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후대와의 관련성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후속 연구 성과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안유경,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석의 사단칠정론 비교 연구」

이 논문에서 저자는 심설논쟁의 주역 중 하나인 만구 이종기와 면우 곽종기의 사단칠정론을 비교 고찰하고자 했다. 만구는 정재 유치명, 면우는 한주 이진상 계열의 문인으로 저자는 이 둘의 사칠론을 분석하여 구한 말 퇴계학파의 사단칠정론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했다. 한국 성리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사칠론이 구한말에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그 변화과정의 최종 모습은 어떤지를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논문은 가치있다고 본다.

다만 면우와 만구의 사칠론을 병렬적으로 개괄하는 논문의 구성을 통해서 핵심 쟁점이나 비교의 의의를 쉽게 알아차리긴 어렵다. 물론 내용을 재조합하면 저자는 두 학자에게서 칠정을 리발로 규정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저자는 만구가 퇴계와 달리 리기불상리라는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구분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칠정 또한 리가 없을 수 없는 정이기에, 만구가 칠정을 리발로 규정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면우도 기를 경기(經氣)와 위기(緯氣)로 나누고 리가 어떤 기와 만나냐에 따라 사단과 칠정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리와 만난 경기는 사단으로, 리와

만난 위기는 칠정으로 분화하는데 칠정 또한 성에서 발(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면우가 이 점에 주목하여 칠정을 리발로 규정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만구가 사단과 칠정의 공통점인 성에서 발한다는 관점 즉 혼륜설을 보강하는 모습이 보이고, 면우 또한 만구와 같은 혼륜설의 관점을 가지면서도 분개설의 관점 또한 놓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문인 점은 저자의 주된 논지인 '칠정도 성에서 발한다', '칠정도 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칠정이 리발이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 될 수 있는가이다. 퇴계가 '발어리(發於理)'와 '발어기(發於氣)'를 구분한 것은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는 분개의 관점에서 사용한 논법일 뿐 정말로 칠정이 성에서 발한 것임을, 리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칠정리발의 근거들은 퇴계 또한 자기주장의 완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퇴계가 리기지합(理氣之合)인 칠정을 리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리를 통해 칠정의 가치성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리발과 기발이라는 말은 사단과 칠정이 가지는 가치성에 대한 표현 혹은 소주(所主)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리와 기가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저자는 칠정에 리가 있음을 리발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칠론에서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표현의 문제들, 성발위정을 리발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출어성(出於性)을 발어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같은 문제들은 매우 복잡한 맥락 고찰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저자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④ 홍성민, 「사칠론의 해체와 선의 일원화」

이 논문에서 저자는 사단과 칠정의 선의 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점들이 각 학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사단과 칠정의 선을 하나로 합치려 할수록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퇴계는 소종래를 통해 사단과 칠정을 구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단은 절대선한 것, 칠정은 현실적으로 선한 것이 된다. 이 두 선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중절한 칠정은 어떤 것으로 봐야할지가 문제가 된다. 저자가 보기에 퇴계가 칠정을 리발로 규정한다면 기존의 사칠구분이 무너질 것이고, 기발로 규정한다면 겸리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에 퇴계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반면 고봉은 중절한 칠정이 곧 사단과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한 것 같지만 두 정이 어떠한 관계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이에 반해 율곡은 고봉과 같은 구도로 중절칠정과 사단을 보았고, 또한 자세한 도식적 관계를 규정했으므로 고봉보다 진보했다고 본다.

이러한 율곡의 구도에 대해 농암은 경위(經緯)를 통해 사단과 칠정의 구분을 다시 갈라놓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퇴계를 옹호하고 율곡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반면 남당은 오히려 농암의 '경위'라는 구도로 사단과 칠정은 도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정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선악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단의 수오지심이든, 칠정의 미워하는 마음이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대상과 상황이라는 것이 남당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호는 사단과 칠정을 각각 공적인 것, 사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의 중절한 칠정이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이다. 성호는 중절한 칠정이 사적인 것 중에서 공적인 것으로(私中之公)보고 기발에 배속시켰다. 반면 하빈은 사단과 칠정이 각기 다른 두 성(인의예지의 성과 성색취미의 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성인의 칠정은 공적인 리에서 나왔으므로 곧 사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율곡학파이든, 퇴계학파이든 결국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철폐되는 것으로 사칠의 두 선의 관계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은 지극히 윤리학적인 추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 사칠론 논의가 가질 모습을 가늠해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다른 여러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개념과 그 관계에 대한 문제만 성찰할 것을 요구하여 저자와 독자는 사칠론이라는 장에서 스스로 철학해볼 수 있었다. 다만 문제는 이 사칠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념을 사고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논자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주장을 설파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본 논문은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상 논자들이 주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것을 저자는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연구논문으로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저자는 사칠론에서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논자들은 특히나 퇴계에게 있어서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정말로 퇴계가 사칠의 선을 구분하면서 절대적 선과 현실적 선으로 보았는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퇴계는 선이라는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사

단과 칠정 모두 동일하지만, 그것이 선이 되어갈 때의 주요 원인 혹은 주된 바가 구분되므로 다르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저자가 상정한 두 다른 선의 관계는 논의에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 이는 고봉에서부터 논문이 절대적 선, 현실적 선이라는 언급자체가 확연히 줄이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 저자는 진래의 주장을 근거로 두 정이 한 마음에서 나오려면 본연지성, 기질지성에서 각각 사단과 칠정이 발출해야 한다고 보는 이정이성(二情二性)의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하빈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빈이 실제 성을 인의예지의 성과 성색취미의 성으로 나눈 것은 있다. 하지만 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구도를 통해 사칠의 구분을 합리화시켰던, 퇴계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논증으로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경위를 통해 농암이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율곡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자가 거론한 인용문에선 오히려 경위를 통해 율곡처럼 사단과 칠정을 도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농암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발동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사칠을 이해하고 모두 기발리승으로 규정했다. 즉 사단과 칠정을 주리주기로 구분하는 모습이 비록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율곡의 논의맥락을 이어받고 있다. 때문에 저자의 그러한 평가가 과연 율곡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사단칠정론을 철학한다는 시도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원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개인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⑤ 김부찬, 「퇴계 이황의 활인심방에 나타난 심신수양론」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수양론을 마음수양과 몸수양의 두 갈래로 분석

한 뒤 이를 경(敬)과 연관시킴으로써, 퇴계사상이 상업화와 물신화에 빠져 있는 현대 체육활동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해당 논문은 먼저 『활인심방』에 나타나는 몸 수양과 마음수양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활인심방』에서 나타나는 심신수양론의 특징과 퇴계의 경 사상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은 무난하며, 결론 부분에서 현대 체육활동에 퇴계 사상을 접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은 한국 성리학에 대한 저변 확대의 측면에서 확실히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활인심방』에 나타난 심신수양론이 그대로 퇴계의 심신수양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스러운 접근법이라"(42쪽)고 하고, 또 "퇴계가 제기한 경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주권의 『활인심』의 영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43쪽)고 하여, 『활인심방』 자체를 퇴계의 사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도가적 색채가 강한 『활인심방』과 경 사상의 유사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후 논지 전개 과정에서 퇴계 『언행록』의 '反諸吾身, 猶未能自盡'[4]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이는 경수행이 마음뿐이 아닌 구체적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도 반성해보니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퇴계에게 있어서 '경'은 마음뿐이 아닌 구체적인 몸의 행위를 통하여 완성됨을 알 수 있

4 해당 문구는 "덕홍에게 敬 공부에 대해 답한 편지를 쓰고, 인하여 한 통을 베껴서 벽에 걸어두었다. 월천 조목이 일찍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어째서 이처럼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내가 비록 사람들을 가르치키를 이처럼 하였지만 내 자신에게 돌이켜 봄에 아직 스스로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退陶先生言行錄』, 「論持敬」, "答德弘論敬書, 因寫一通, 揭之于壁. 趙月川穆嘗侍左右, 問 何以若是, 曰 我雖敎人如此, 而反諸吾身, 猶未能自盡, 故然耳.")의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다."(45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활인심방』과 퇴계 경 사상의 유사점을 피력하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수련(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활인심방』과 퇴계의 경사상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45쪽)라고 결론지었다.

저자는 상술한 원문을 해석하면서 '身'자를 '신체'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결론에서 "성인을 목표로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닦았던 퇴계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47쪽)을 주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그러나 상술한 원문을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면 "내 자신에게 돌이켜 봄에 아직 스스로 다하지 못하였다."가 되는데, '신체'와 '자신'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퇴계의 의도는 "경(敬) 공부에서 자신이 미진한 점을 경계한다"는 것이지, 저자의 주장처럼 "내 신체에 미처 수양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퇴계 사상과 『활인심방』의 간접적 상관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원문을 해석하였지만, 저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퇴계의 사상을 접합하기 위해 '身'자를 오역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역은 논문의 결론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당초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성리학적 개념인 퇴계 경 사상과 도가적 색채가 강한 『활인심방』의 직접적인 연결을 부정하였으면서 결론 부분에서 오히려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현대 스포츠의 심신수양적 성격 회복을 위해 퇴계 경 사상을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는 학술적 의의가 있지만, 오역으로 인해 논문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⑥ 권봉숙,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 연구」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저술에서 포착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담론의 현대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는 퇴계의 건강증진 활동이 긍정적인 건강결정 인자들을 중심으로 신체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으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근원과 실행력이 있다고 보았다. 먼저 신체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을 개인적 병고를 물리치기 위한 절박함에 대한 통찰에서 찾았으며, 정신적 건강증진 실행력의 근원을 병을 분명히 인식하는 지각력의 통찰에서 찾았으며, 사회적 건강증진 실행력의 원천은 참된 사회봉사로서 대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통찰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퇴계의 통찰력을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시키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퇴계의 실행력을 간호학적 관점에서 개별화된 건강증진 실행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계의 건강증진 내용을 현대화 시키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저자는 퇴계의 건강증진 실행력의 근원을 신체, 정신, 사회의 세 측면으로 나눈 후 각각 "신체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의 근원은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자기관찰에 대한 통찰", "정신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의 근원은 명상을 통해 '내려놓기'와 '이완하기'를 통해 자연과 벗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사회적 건강증진의 실행력의 근원은 공직생활에 대한 헌신과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경명의(持敬明義)'에 대한 통찰"로 보았다.(46쪽) 그리고 상술한 세 가지 측면을 언행록의 기록과 퇴계가 겪었던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정신적 건강증진과 사회적 건강증진의 측면은 분명 퇴계의 수양론과 연결되는 것처럼 서술하였지만, 사실상 퇴계 사상에 대한 고찰이 결

여된 채 논지를 전개하였다.

일례로, 저자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 하고 머리 빗고 갓을 쓰고 옷을 입고는 엄숙하게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정확한 발성법으로 낭독한 후 온 종일 책을 보며, 혹은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서 항상 그 마음 살피기를 해가 처음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정신적 건강증진의 측면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였다.(43쪽) 이는 분명 퇴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좌수련, 독서법 등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퇴계사상과의 연결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철학적 측면에 대한 서술의 결여는 결정적으로 경(敬)에 대한 분석의 결여로 나타났다. 저자는 "퇴계의 사회적 건강증진의 근원은 철저하게 공경과 정성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권사회에서 왕과 약속한 대의를 지키며 참된 사회봉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통찰에 있었다."(39쪽)라고 하여 지경(持敬)을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공경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경(敬)을 일상언어에서의 공경으로 해석한 것으로, 저자의 주장이 퇴계의 경(敬) 사상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채 전개된 것임을 보여준다.

⑦ 이종수, 「鄭道傳『朝鮮經國典』法治思想 分析」

현대인이 잃어버린 이상적인 무엇인가가 이미 과거에 존재하였고, 이를 찾아 현대에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혹은 과거 특정인의 사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상적인 것이었지만 그 당시의 정치 · 경제체제가 받쳐주지 못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관점은 과거 전통사회와 사상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미화시키기만 한다. 이종수의 「鄭道傳『朝鮮經國典』

法治思想 分析」에서도 정도전을 정확하게 평가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화만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종수의 논문은 정도전의 사상을 "오늘날 우리국민의 대내 · 외적 자주의식사상의 뿌리가 되었다(논문 519쪽)",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520쪽)", "오늘날 새로운 정치, 행정사상의 개발을 논하는데 도움이 된다(520쪽)" 등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에서 정도전의 사상을 현대에도 활용할 것을 주장하며 여러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종수의 논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정도전의 사상을 논증하는 방식이 다소 허술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정도전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선 정도전의 사상을 논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II.『朝鮮經國典』의 構造와 特性'은 그 하위 장절(章節)로 '제1절 조선 건국과 법제, 사상의 정의'(1. 『조선경국전』구조적 특징 2. 후속법제, 3. 삼봉의 융합적 법치사상의 특징과 정의)과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1. 선행연구 2. 內容 分析의 틀)있다. 이미 제1절에서 정도전의 "인문융합 법치사상"을 "수기치인(국가 운영관리의 제도화)의 수단으로 성리학적 철학과 이상의 구현을 위한 고대 전국시대 『書經』, 『周禮』, 事功學, 經世學, 주희의 주자학, 정침의 '義' 사상을 融合하여 조선건국 법제(규)와 한양 도성 등에 투사한 제도 실천의 기반과 이념(521쪽)"으로 정의하였다. 정의 자체도 상당히 모호할뿐더러, 정의 과정에서도 분석은 적고 선행연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식이어서 논증과정이 엄밀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전의 사상의 현대적 적용

방법은 비약이 다소 눈에 뜨인다. ‘Ⅳ. 『朝鮮經國典』의 현대적 시사점’은 ‘제1절 삼봉의 融合민본사상’(1. 삼봉의 融合민본사상 2. 민본법치사상의 현대적 의의), ‘제2절 사회적 활용’(1. 활용 측면 2. 현대 인사제도적 활용 3. 삼봉 치인관의 적폐치유 가능성)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절에서 삼봉의 융합민본사상을 설명하면서 ‘융합’의 의미를 다시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깊이 있는 접촉”으로 재정의하고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 학문융합, 통섭 등을 제시한다. 이는 정도전의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자의 관점대로 정도전의 사상을 재해석한 뒤 이를 현대에 대두된 개념과 연결시킨 것으로 선후가 바뀐 것이다. 또 제2절에서 다룬 활용 측면에서 ‘삼봉의 거리’ 조성, 세종로에 삼봉 동상 건립, 삼봉재 정좌프로그램 개설, 도성 걷기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건의하는데, 거리조성 · 동상건립 등이 어떻게 정도전 사상의 현대적 활용인지 알기 어렵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인물별/주제별로 2018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주제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의 비중(56편, 약38%)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수양론 및 교육론(21편, 약 14%), 경세론(20편, 약 14%)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범주들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에 소속된 논문의 비중도 매우 높게(59편, 약 40%) 나타났다. 이것은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경향이지만 수양론 및 교육론의 비중이 작년(19%)에 비해 다소 줄고, 경세론의

4%증가하여 다소 늘었다.

인물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이황 · 이이 관련 논문의 수는 2018년도 전체 비율에서는 대략 31%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41%)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고, 또 이황에 관한 연구가 이이를 다룬 논문의 2배 정도로 많았던 예년의 경향에 비해 올해에는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26편/19편). 이것이 기존의 연구경향이 이황과 이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황에서 편중되었던 동향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주목된다. 이어서 한원진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6편) 이는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드물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비슷한 정도로 연구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원진이 조선 후가 성리학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고려할 때, 이것이 조선 후기 연구의 더 활발한 전개에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외에 갈암 이현일(5편)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주로 『홍범연의』에 관련된 연구로 집중되었다. 한편, 작년도에는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려웠던 포저 조익에 대한 연구가 4편 포함된 것도 한 특징이다.

2018년도 연구성과의 전반적인 경향은 2016년 · 201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퇴계와 율곡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양상이 다소 달라져서 지속적인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 볼 만하다. 퇴계와 율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연구의 집중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면서, 연구의 경향도 호락논쟁의 범위를 완연히 벗어나고 있는 한원진에 대한 연구 동향도 주목할 만

하다. 성리학 연구의 동향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연구 범위와 방법의 다양성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한다. 다양한 분야를 통해 창조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전반적인 연구 성과들 간의 질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성리학 연구의 긍정적인 전망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